개인파산 전문 브로커 '활개'

광주·전남 기업형 운영 사건 '싹쓸이'… 부작용 속출

광주지검,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7명 구속

기업형 브로커들이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수임료가 치솟고 일부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4일 브로커와 손잡고 수 백건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준 전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이모(67)씨와 브로커인 사무장 김모(41)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이모(70) 법무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업·조직형 브로커 개입=이 변호사는 2005년 9월께 경기도 성남에서 개인파산·회생 사건 처리 경험이 있던 김씨를 사무장으로 앉혔다. 김씨는 이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고 건당 250만원 상당의 수임료 중 건당 55만원을 이 변호사에게 건네주기로 약정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직원 8명을 고용해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들은 또 대부업체인 S신용과 업무를 제휴, S신용이 김씨에게 수임을 알선해주면 건당 39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S신용은 광주와 전주·목포·순천·여수 등 6곳에 지점까지 두고 생활정보지·전단지·플래카드·인터넷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을 돌며 설명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파산사건을 싹쓸이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 변호사가 10개월 사이 수임한 개인파산·회생사건은 550여건에 수임료만 14억원에 달했다.

또 구속된 H법무사 사무장 이모(44)씨는 법무사 이모(70)씨에게 월 200만~250만원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린 뒤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처리, 4억1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벌었다. 이씨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원 건물 아래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상담 창구 6곳을 만들어 개인회생 신청 및 상담을 하러온 사람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속출=개인파산·회생 사건에 브로커 조직이 개입하면서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이 문닫을 상황에 몰리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250만원으로, 다른 지역 150만원(경비 포함)에 비해 100만원이나 비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들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파산신청을 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산농협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바람에 30억원의 결손이 발생, 지난해 10월 광주지법에 파산을 신청했고 내달 초 파산 여부가 결정된다. 흑산농협은 앞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대출한 조합원 70여명이 개인 파산선고를 받아 60억원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없이 대출하기도 해 개인파산 때문에 문닫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개인파산 선고=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불능상태', '채무초과상태' 등에 빠진 개인의 경제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준다. 개인회생은 일정 금액의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2년 사이 개인파산·회생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인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들이 '개인회생·파산' 간판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개인파산 신청자 급증

광주지법, 작년 7,930명…2005년의 8배

경기불황과 취업난 속에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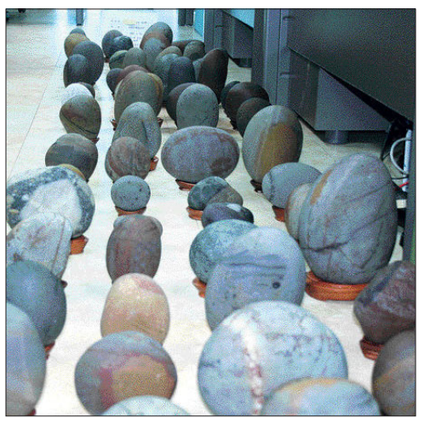
법원이 신청절차와 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면책 허가율이 50% 안팎을 보이면서 신청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법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7천930명으로, 전년 1천231명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지난 2001년 31명, 2002년 20명, 2003년 104명, 2004년 31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청자가 1천32명으로 월 1천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제도가 빚 때문에 범죄에 빠지거나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구제 기능이 끝나가고 있고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흑산도 무늬몽돌 150여점 무단 채취·반출 40대 검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25일 신안 흑산도에서 자연석(무늬몽돌·사진)을 몰래 채취해 반출한 배모(43·신안군 흑산면)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낚싯배를 이용해 대흑산도 인근에서 무늬몽돌 150여점을 채취한 혐의다.

배씨는 지난 2005년 8월 무늬몽돌 66점을 충청도의 한 남성에게 1천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우편으로 보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무늬몽돌을 오징어 포장용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일반화물인 것처럼 위장한 뒤, 흑산항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의 집에서 압수한 나머지 무늬몽돌을 공원관리청과 함께 원상복구 할 예정이며, 비슷한 수법으로 무늬몽돌을 불법 채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흑산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공원 내에서 동·식물 등을 포획하거나 채취, 반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상가건물 불 점포 5개 태워

어제 새벽 광주 우산동

25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1층 상가 S떡 전문점에서 불이 나 신발가게 등 인근 점포로 옮겨 붙어 5개 점포(200㎡)를 모두 태워 2천500만원(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서는 떡집 천장에 있던 전선이 끊어진 흔적으로 미뤄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옆 점포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휴대전화 많이 쓴다" 꾸지람 어머니 살해

대전 중부경찰은 25일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꾸지람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박모(3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대전시 중구 집 안방에서 어머니 김모(56)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말 휴대전화로 성인 유료서비스를 자주 이용, 전화요금이 수백만원씩 나오자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데 불만을 품고 다투다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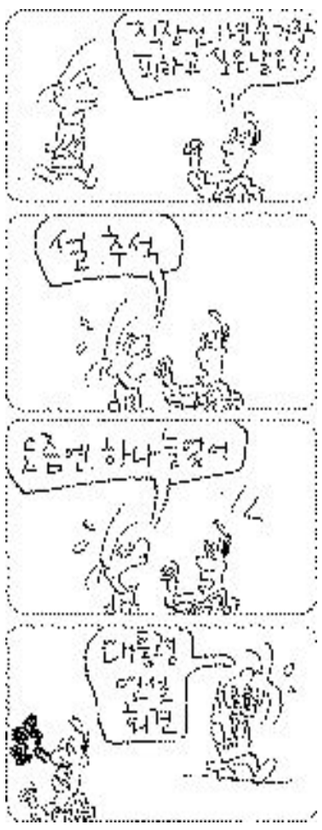
임금·퇴직금 체불 제조업체 대표 구속

광주지방노동청은 25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나주 K제조업체 대표 김모(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9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근로자 3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2천여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임금대장을 조작, 3천2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

나원참 〈7038〉 김종두



180년된 적하수오 7뿌리 '횡재'

쌍나팔

○…여수시 덕충동 임모(61)씨가 지난 7일 돌산읍 한 야산에서 8~10㎏이 나가는 초대형 적하수오(赤何首烏·사진) 7뿌리를 채취.

○…임씨는 "꿈에 어머니가 가방에 뭔가를 담아 주었다"고 기뻐했는데, 적하수오는 강장·강정·감기·신경쇠약·관절염 등의 치료에 쓰이며 흰머리 털을 검게 한다는 약초.

○…이 적하수오를 감정한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은 "수령이 180년 이상 된 것으로 보여 7뿌리의 감정가는 약 1억원 정도"라고 평가. /여수=강성훈기자 kangsw@